



총회보고서

주 안에서 자매와 형제되신, 친애하는 WCC 10 차 총회 참석자 여러분,

I. 생명의 하나님

1. “생명의 하나님,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이끄소서.” 제 10 차 총회의 주제는 WCC 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곳 WCC 에 함께 모여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WCC 는 이제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2.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부름 받은 모습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우리의 생명과 온 피조물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부여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신비와 굳게 연결되어 있고; 생명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운데 있으며;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역사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며 행동하며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를 함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행 17:28)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술과 마음에 이런 기도를 담고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되도록 불러주시고, 세상을 섬기라고 보내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3. 생명은, 성경에서 그리고 일상의 경험에서, 많은 표현들과 상징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트는 새벽, 여명은 이를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다음은 이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묘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눅 1:78-79*

4.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5. 새벽은 우리를 경허하게 만듭니다: 매일 매일, 새로운 날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경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는 어제의 일을 새로운 시간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새벽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빛을 가져다 주며, 생명에 관하여, 사물에 관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인간에 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희망적입니다: 어제를 떠날 수 있고 밤을 뒤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심지어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도 빛이 비칠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은 평화의 길로 인도 될 것입니다.
6.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날을 창조하십니다: 지구상에서 생존을 위협 당하고 있는 모든 창조 세계의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모든 오늘의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내일의 생명을 위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교 그룹들 사이의 갈등에 직면해 있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혹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전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새 날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경험한 바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신앙과 생명의 일치로 토대로, 이제 전 세계적인 교회 일치 운동을 창조해가고 계십니다.

7. 위로부터 오는 해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물로 인한 것입니다.
9.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생명의 하나님 안에,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사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기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교제 가운데로 부르시는, 빛 가운데서도, 어둠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심지어 우리 인생과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교제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현존은 세계 가운데 임한 은혜로운 변혁의 힘으로 가장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는 어떤 곳도, 어떤 인간도, 어떤 불의도,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구세주의 은혜에 의해 물려서지 않는 죄나 악은 없습니다.
10.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생명의 하나님이 죄와 죽음을 딛고 승리하신 부활을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 기대할 수 있는 용기, 기도할 용기, 그리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생명가운데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인 기쁨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이상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너머의 희망을 품게 해 줍니다.
11.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의 생명이 과거의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위협받는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까지의 발전이 야기한 모든 문제들과 앞으로 올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위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과잉 소비, 파괴적인 유해 가스의 배출과 이로 인한 대기 오염, 이에 기인한 자연재해,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더 많은 에너지, 음식, 신선한 공기를 소비하려는 데서 온 자연 착취, 그리고 현재의 세계 경제 활동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수 많은 인생들. 많은 빈곤한 자들이 더욱 빈곤해져 갑니다. 사태가 더 이상 이렇게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UN 환경패널을 비롯한 각종 보고서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바로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12. 우리는 또한 새로운 여명, 빛과 희망의 새 날의 여러 징조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1990 년 이래로 21 억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30년 전 보다 3 배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구조되었습니다. 많은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비하여 심각한 범죄와 살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국제 전쟁이 줄어들고 더 많은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인류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더 빨리, 더 많이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13. 우리는 모두 매우 다른 상황 가운데 있으나 연합을 위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수 많은 다른 장소와 문화로부터 온 교회들입니다. 그 다양성으로부터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와, 경험과, 희망과, 기도와 비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고통과 도전,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분열과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질을 서로 나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눔이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희망에 있어- 먼저 우리 자신이 뭉으로써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친교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4. 이번 총회는 가장 많은 세계인구가 거주하고, 거대한 글로벌 부와 힘이 함께하는 아시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또한 많은 질병, 인간과 자연을 보호해야만 하다는 염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성장과 희망을 공유하지 못한 가족들이 상존하는 대륙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는

종교적 신앙과 실천을 통하여, 조화의 철학과 실천이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크게 침해되고, 서로 다른 인종, 계급, 그리고 종교간 갈등이 심히 염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15.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근면히 일함으로 빈곤을 극복해왔고, WCC 가 독재와 억압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나라입니다. 여전히 한반도와 한국 사람들은 나누어진 채로 살고 있고 정전협정 후 지난 60 년간 평화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대한민국을 몇 차례 방문하였고, 몇 주전에는 북한과 휴전선도 방문했습니다. 나는 그 분열의 힘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전체 한국 사람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깊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16. WCC 는 북한 사람에게 기초 보급품을 전달하는 인도주의적인 협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정의와 평화에 초점을 맞추며, 북한과 남한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CC 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며, 그래서 금번 총회는 한민족 사이에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혜롭고 확고하게 말하면서, 평화와 삶의 공유가 없이는 정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근원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여러 관련 당사국들의 교회 지도자들간 고위급 회담을 새롭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 모두로부터 환영 받았습니다.
17. 고통과 희망 간의 긴장이 상존하는 삶의 한 복판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계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첫째로 가장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삶의 거리 혹은 마을이 어디인지를 알고, 바로 그 곳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다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순례의 동료들과 동행하며 우리는 세상의 악에도 불구하고, 선함의 신비를 감지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애로운 긍휼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18. 10 차 총회의 로고가 상기시키듯 생명의 나무는 심지어 돌 틈 사이에서도 자라나며 우리는 피신처와 열매와 영감을 이 나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에게, 서로 서로에게, 이 땅과 이 대륙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부르신 모든 이웃에게, 그리고 전체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귀기울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새로운 여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곳이 어디입니까?
19. 이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읽으셨을 많은 보고서와 문서들, 특별히 *정의*를 행하는 신앙: 포르토 알레그레로부터 부산까지의 WCC 의 여정 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는 여러분들이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그러나 더 크게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해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II. 우리를 이끄소서-교회들의친교

II.1 세계 교회 협의회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20.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회들의 친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공유된 은사와 소명에 의해 정의하고, 신앙과 봉사 가운데 함께 교회됨으로 정의하며,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 세가지 측면 간의 역학이 WCC 가 담지한 고유한 정체성의 특징입니다.
21. 우리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이 새 날의 순간을 WCC 에 주창합니다. 우리의 기본은 말하기를 우리는:

...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주로 고백하는,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통의 부르심을 함께 추구하는 교회들의 친교이다

22. 우리 -교회들은- WCC 를 유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 존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사건들, 세계가 직면하였고 벗어났던 심각한 부정의와 위기들이 20 세기에 있었지만, 사람들과 나라들, 교회들과 종교들의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중요한 시도들과 단체들도 역시 이 세기에 태어나고 확립되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과 이 운동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독특한 제도적 표출로서 WCC 는, -다른 신앙고백과 전통을 지닌 교회들, 다른 나라와 다른 대륙의 교회들간에- 더 나은, 더 강한, 더 깊고 넓은, 그리고 상호간의 더욱 책임 있는 관계를 함양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왔습니다.
23.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다른 어떤 것 보다도 교회 일치 운동과 WCC 가 필요함을 절감 하였습니다: 탈 식민지시기에, 냉전기, 반 인종차별을 위한 투쟁기에,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신뢰와 관계성을 재확립하던 시기에, 그리고 이후의 다른 갈등기에.
24. 어떤 이들은 자신의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의 존재를 향해 눈을 뜨고, 세계의 더 큰 필요를 보기 위해, 지구적 현실을 특권을 부여 받지 못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기 위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공동성명, 새로운 신학적 성찰, 협의회 리더십이 필요했고; 다른 이들에게는 조용한 접촉과 지지의 표식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25. 이 모두 중에서, 본 세계교회협의회는 언제나 여러분과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없이는 이러한 필요에 대한 어떤 응답도 있을 수 없습니다.
26. WCC 의 가장 큰 자산은 여러분, 즉 345 개의 회원 교회와 이에 더하여 회원 신청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두 교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비단 한국의 주최 교회들 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과 파트너들의 관대한 지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할 수 있었고, 가능한 모든 교회가 이곳 부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헌장이 천명하는 바, 그리고 하라레(Harare)에서 열린 제 8 차 총회, *교회들의 연합*의 문서 『WCC 공통의 이해와 비전을 향하여』가 결론 내린 바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27.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특별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하면 WCC 의 이 독특한 가치를 강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 서, 남, 북 모든 인류의 실제적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 종교의 자유, 종교간의 평화를 이해하는 데 공헌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평화”를 우리의 규범과 공동의 목표로 정하여, “정당한 전쟁”에 관한 전통적인 토론 수준을 넘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세례 속에서, 성만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섬기는 목회 가운데에서 우리를 많은 전통들의 교회들로 연합시키는 것에 대한 새로운 표현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들간에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28. WCC 는 견고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회를 통하여 결의될 헌장을 따라 더욱 유능하고 강력한 이사회를 가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WCC 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결정적으로는 다른 총회보다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자원들이 공급되고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계획을 짜고 실행할 만한 안정된 수입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규모와 자원에 맞게 기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회원 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자들이 더 깊이 우리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견고한 방법과 적절한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29. 우리에게서 참모들과 비서진들 그리고 세계 각국 대표들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의제와 비전을 공유하는 많은 다른 지구적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새로운 참모들을 모집할 것입니다. 최고의 인력이 이 일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0. 우리에게서 WCC 가 교회 일치 운동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상호간의 책임을 증진시키는데 리더쉽을 발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31. 우리에게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또 이 총회가 요구하는 필요에 부합하여 개정해 갈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공헌하고 더욱 깊이 참여해 줄 파트너가 있습니다.

II.II. 지난 총회 이후

32. 지난 총회 이후 우리는 도전적인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서를 보신다면, 2008 년의 경제적 위기처럼, WCC 와 우리의 멤버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친 다양한 위기를 세계의 각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WCC 안에서 제도적인 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대처해야 했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33. 더욱 적어진 자원과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또한 풍성한 추수의 시간이었고, 근면한 노력의 시간이었고, 새로운 기획의 시간이었고, 협의회에서 함께 일하기 위해 온 새로운 동료와 협력자들의 시간이었고, 교회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었고 통찰들의 나눔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금번 총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날의 새로운 여명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34. 우리는 겸손과 정직과 희망 가운데서 함께 기도했던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의 제 9 차 총회의 축복들과 영감을 가져옵니다: “자비의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주소서.” 그 작업은 프로그램들의 정의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조정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9 차 총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의 주도 아래에서 대부분 이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의장과 두 분의 부의장에게, 특히 세 분의 신실하고, 긴 시간을 요구하는 업무와 제네바로부터 세계 각처를 돌아다녀야 했던 수많은 여행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전체 연합을 대표하여, 저는 또 각 지역을 협의회에 대표하고, 협의회를 각 교회와 세계에 대표해준 WCC 회장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전임회장이신 이디오피아의 아분 파울로스 총대주교(Patriarch Abune Paulos of Ethiopia)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35.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이 시기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성을 제안해왔고 협의회는 많은 요구에 대하여 전체 회원들을 대신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위원회의 멤버들과 고문들, 그리고 실무 그룹들이 지혜와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교회와 파트너로서 여러분은 재정적 자원을 충당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과 언급하지 못한 훨씬 많은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전체 세계교회협의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전합니다.
36. 두 총회 사이 시간의 처음 몇 년 동안 저의 전임자이신 샘 코비아(Sam Kobia)는 저에게 WCC 업무와 총무의 직무를 소개해주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샘 코비아(Sam Kobia)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7. 제네바와 다른 사무실들의 스태프들은 매일의 과중한 업무와 염려와 도전 가운데서도, 성취의 기쁨과 우리 손과 정신의 노동의 결실이 가져다 주는 축복과 연대의 동료애와 상호 지지와 위대한 헌신의 영감을 나누며, 우리의 일을 필요로 하는 교회와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WCC 활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 동안 WCC의 재정이 심각하게 감축됨에 따라, 현재는 직무를 수행할 스텝 멤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조직의 효율성을 창출해 내기 위해 일했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집중하였고, 프로그램과 관계 형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39. 우리는 교회들의 헌신이 계속적으로 갱신되기를 기대하고, 새로운 재정적 협력자들을 찾기 위한 기획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두 활동들을 지난 수년간 추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총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많은 아이디어와 공동의 헌신과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II.III 제네바 에큐메니칼 센터

40. 지난 65년간 제네바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교회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큐메니칼 센터의 채플은 제네바의 문화유산위원회에 의해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고; 지금은 보존되어야 할 보호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41.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WCC 연금 기금으로부터 야기되는 적자의 심각한 위험에 대처해 왔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이해했고 그것을 중앙위원회 산하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우리는 기존의 독립적인 WCC 플랜을 대신하여 지속 가능한 펀드에 납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출에 의해 가능했고, 그래서 대출을 갚기 위해 제네바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발전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이 협정은 WCC 에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재건된 새로운 에큐메니칼 센터가 사무실의 구옥을 특별히 수리하거나 개선할 필요 없이 다음 수십 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과정이 매우 견고하게 잘 진척되고 있고 두 주 전에 제네바 정부의 대표를 포함한 아주 유능한 심사위원들의 결정을 이끌어 냈음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다양하게 구성된 심사그룹은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제네바 지역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프로젝트를 선정했다는 점에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과 그 교회에 어떤 재정적 지원도 요청하지 않고, 우리와 제네바 당국에게 전도유망하고 견고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2. WCC는 여러분이 회원 교회로 계시는 지역 어디에나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WCC입니다. 하지만 제네바의 에큐메니칼 센터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 그것은 국제 기구들과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인권과 어린이들과 건강과 군비축소 등 그외 많은 것들을 위한 그들의 활동의 핵심에 우리를 정초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국제적 현실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져야 하며, 국제 위원회는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보고 들어야만 합니다. (자기) 주창(advocacy)의 역할은 WCC 에게 언제나 결정적이었고, 제네바, 뉴욕 오피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사이의 연계를 강화함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무기 거래 조약 업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부에 대하여 한 주장이 얼마나 고무적이며, 또 후에 WCC 로 하여금 얼마나 중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지 보았습니다.

II.IV 기독교적 연대

43.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전 12:21). 저는 우리가 WCC 안에서 키워온 고유한 관계의 특성들 한마디로 “연대”라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적 연대.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결속은 모든 에큐메니칼 관계의 토대로서 매우 강력한 성경적 원칙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호 책임성과도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히 우리가 여러분 중 누군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거나, 혹은 지금은 필요 없다는 따위의 말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신음하는 세계와의 이런 연대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이끄소서”라고 기도합니다.
4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빈 손으로 살아가는 자들, 특혜 받지 못한 자들, 덜 가진 자들과 연대하시고, 그러므로 ‘가난한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는 것은 그와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심지어 불의와 폭력의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골고다로의 그의 여정은 거짓과 인간의 연약함과 불의와 죄를 그 다양한 차원들 가운데서 해체시키고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부활과 함께, 그것은 단번에 모든 이의 죄에 대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을 통해 주어진 용서와 화해와 정의와 평화의 여명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다는 것은 삶에서도 죽음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십자가와 부활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45. 기독교인들의 연대는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절대 타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연대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상호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교회일치적 배움의 토대로서, 세상은 우리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II.V 일치의 추구

46. 일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표현이며, 새로운 연대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치라는 선물과 소명의 중요성을 봅니다. 기독교인의 일치는 모든 인류와 피조물의 일치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분열로 이끄는 불의와 갈등 - 인종, 성, 경제적 신분이나 그 밖의 요인들로 인한 차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폭력과 국가 내부의 더 심한 폭력들; 땅으로부터의 분리
47.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징후(a sign)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희망이라는 또 다른 차원과 생명의 비전을 함께 가져오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번 총회의 여러 문서들 속에 진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직제 위원회의 결실 중 <교회-공통의 비전을 향하여> 라는 문서는 중요한 노력과 이정표를 대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용되고 연구되어야 할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일치로의 부르심-그리고 우리의 헌신』이라는 제목의 글은 이 총회를 위한 일치에 관하여 제안된 발표문인데, 그 안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모든 이들의 종으로 그리고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징후로 제시되고 있다.
48. 우리는 또한 온전한 성만찬적인 유대감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양자간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의에 기반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회가 이를 실천하였다는 것을-지난 수년간- 잘 알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행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또 30 년 전에 수용한 *교회, 성례전 그리고 목회*, 이 후 교회들이 이 과정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신앙과 직제 위원회의 한 본문을 수용하면서, 서로간의 세례를 인정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 사이에 성만찬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 부분에서의 의견 충돌 혹은 다른 교회의 중요한 이슈들로 인한 분열은 불일치의 고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9. 그러나 지난 65년간 교회들이 일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경험 하면서 이 일치가 우리와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감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 토론을, 사려 깊은 과정과 합의의 방법론을 통해 중요한 문제에 있어 의견 일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치의 은혜를 경험해왔습니다. 정교회의 WCC 참여 관련 특별 위원회의 성과에 특히 고무되었듯이, 이 과정은 우리가 중요한 이슈들을 계획하고, 공식 선언서를 작성하고, 중요한 텍스트를 승인하고, 새로운 교회 멤버를 받아들이는 등의 문제에 있어 의견 일치를 향해 얼마나 많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살고 서로의 다른 입장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때때로 합의를 강요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또한 우리의 일치에 공헌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50. 우리는 글로벌 기독교 포럼에서, WCC 와 다른 교회 심의 단체들과의 서로 다른 그러나 보완적인 역할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확립하는 이해 각서를 발전시켰습니다. 나는 올해 5월,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의 일치를 기념하는 이 협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II.VI. 선교의 연대

51. 우리는 이 시기 동안, 세계선교와 전도 위원회에 의한 새로운 선교 선언,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지형에서 선교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함께 연대하여 선교해야 하는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널리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고 우리 시대 선교의 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선교학자들과 많은 교회 리더들이 초 교파적으로, 복음주의 계열, 오순절계열, 그리고 로마 가톨릭을 포함하여, 참여한 것은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큰 공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봉사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오늘날과 우리 시대를 넘어 모든 날들, 부활과 영생의 날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52. 이는 또한 신약의 중요한 차원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변두리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와 구주를 섬기는 종교이지만,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여러 곳에 속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특별히 우리가 소외된 곳에서, 우리와 함께 현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53.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복음을 나누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부름 받은 것은 교회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문서 *다종교 세계에서 기독교의 증언*은 WCC 와 교황청 평의회가 종교간 대화와 세계 복음주의 동맹을 위한 기초로 시도한 것으로,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수용하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II.VII 정의로운 평화의 길

54. 정의로운 평화는 연대와 책임의 성경적 태도입니다. 이는 정의와 평화가 경건한 삶의 분리될 수 없는 양면이라는 윤리를 대변하는 것이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폭력과 갈등보다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용서와 화해, 갈등하는 관계의 변혁 그리고 연약한 지구의 보호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민중들 모두를 위한 공평한 자원분배를 주창하는 곳마다, 우리는 정의로운 평화를 실천합니다. 정의로운 평화는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여행입니다—때로 힘든 여행입니다—그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정의와 폭력에 대한 우리의 공모관계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
55. 2011 년 자마йка 킹스톤에서 개최된 국제 에큐메니칼 평화회의(IEPC)는 정의로운 평화는 단순한 WCC 의 활동 이상의, 기독교인 정체성의 바로 핵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케러비안 교회들의 영적인 삶에 고무되어, 우리는 평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사역을 축하합니다.
56. 정의는 성경적 용어, 충실성(faithfulness)에 상응합니다; 그러므로 신뢰와 연대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용어인 평화가 내포되어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생명을 완성해가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신뢰를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갈등의 시기에 반드시 성취하도록 부름 받은 소명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아래서부터, 우리 공동체와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이루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평화는 이 세계의 부와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공평과 연대 가운데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도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조물 모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합니다.
57. 정의로운 평화의 추구는 모든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의와 평화 사이의 올바른 역동을 이해하는 길로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데, 대안으로서 정의로운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연대하여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데 열려있어야 합니다.

58. IEPC 를 위한 사전 문서, *정의로운 평화로의 부름*을 작성하면서, 협의회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복음이 단호히 명령하는 바 책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총회가 이 문서와 자마이카로부터의 보고서를 수용하게 되면, 이 복음적 명령은 각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성찰과 토론은 금번 총회의 주제와 계획의 핵심입니다.

II.VIII 갈등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교회들과 연대

59. 본 총회의 자리로서 WCC 중앙위원회가 생각했던 또 다른 개최지가 다마스쿠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이 부르심이 특별히 우리가 총회를 위해 모이게 되면서 저의 마음에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시리아의 민중들과 교회들과 더불어 우리는 함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협력실천기구 연합(ACT Alliance)는 그의 여러 협력기구들과 더불어 우리의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적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시리아 내부와 외부의 대략 7 백만에 이르는 난민들에게 피신처와 음식과 후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0.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잔혹한 그래서 철저히 비난받아야 할 화학무기 공격이 감행된지 몇주가 흐른 올해 9 월, 시리아에 대한 외부의 군사적 공격이 가져올 비극적 귀결들을 두려워 하면서, WCC 는 시리아와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여러 유럽 지역들의 교회 지도자들과 고위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보세이에서 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과 유엔-아랍 연맹 시리아특사인 라크다르 브라히미와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과정을 주창하고 일어나야만 한다고 그리고 다른 신앙 공동체들과 그 지도자들과 더불어 화해 과정에 중요한 지체로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아난씨와 브라히미씨는 촉구했습니다.
61. 그 자문은 시리아의 평화를 위한 정치적 해결책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공식발표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세계교회협의회 역량을 능가하는 발표문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공통의 목소리가 즉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일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모독과 불화의 고통을 실제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 차 제네바 모임 초기에 두번째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갈등의 정치적 해결을 향한 평화로운 길을 찾아야만 하는 실패할 수 없는 과제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모임입니다.
62. 최근 수년간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세계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발전되었던 땅에 살고 있는 이들과 연대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중동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고, 그 정치적 갈등과 무력분쟁들이 얼마나 참담하게 그들을 심지어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아 가고 있는지를 특별히 마음에 담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라크와 이집트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모든 이들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평등의 시민정신과 민주주의라는 문화의 실천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평화, 법의 보호와 통치, 화해와 개발을 요구합니다. 물론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63. 우리가 믿는 성서의 땅에 존재하는 기독교인의 현존과 증언은 애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나라들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64.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보다 더 오랫동안 정의로운 평화의 필요성을 갈망하며 민중들이 살아왔던 땅은 찾아보기 거의 어렵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적절한 공간과 안전을 제공하는 정의 만이 필요한 영구적인 평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유의 총격과 여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이 갈등상황 속에 놓인 민중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에큐메니칼 동행 프로그램(EAPPI) 등을 통하여, 여러가지 많은 기획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65. 파키스탄에서 교회들은 교인들에 대한 살해와 예배당의 파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이 취약한 공동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신성모독 관련 법률들이 남용되어 신앙의 사람들을 해하는 일이 용납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수자들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와 연관된 수많은 사례들이 최근 CCIA 와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66. 캐나다에서 원주민들(indigenous peoples)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은 기독교 교리가 얼마나 타자들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땅과 문화를 빼앗는데 남용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계교회협의회로서 지난 수십년간 국가별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진리와 화해와 정의를 향한 아주 거친 과정들을 통해 원주민 공동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발견의 교리'(the Doctrine of Discovery)를 다루었고, 이 교리가 비원주민들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교리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제 1 세계 나라 사람들의 지역 교회들은 숫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의 풍족함과 영적 동기를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67. 저는 또한 남 수단 대통령을 뵈었는데, 이 분은 2011년 평화협정을 통해 수립된 그 국민들의 새로운 여명의 징후들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세계교회협의회에게 감사로 표현해주셨는데, 수단 민중들을 위한 지속력있는 평화와 남 수단의 해방을 위한 활동에 에큐메니칼 협력자들과 더불어 WCC 가 신실한 연대와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카르툼(Khartoum)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들이 또한 어떻게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필요로 하는지를 다시금 주지하게 되면서, 저는 정의로운 평화를 일구어내는 일은 전쟁의 시기를 넘어 평화를 수립하는 수준의 일을 넘어서는 엄청난 과업임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처럼 교육과 투자와 노고를 통해 제도들과 관계들을 구축하여, 새로운 날의 도래를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수단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68. 예수가 설정한 물음은 언제나 누가 진정한 이웃으로 나타나 실천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두와 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대 범위에 한계를 설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들을 심화시키고 확장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연대를 향한 소명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신앙이 서로에게 지지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고 있는 정의와 평화의 기호와 맛보기로서 성길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집사 목회(the diaconal ministry)입니다.
69. 전 세계 대륙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분들을 교회들로서 보기 위해 많은 횡수의 방문을 거듭하게 되면서, 거듭 거듭 배우게 된 사실은 최악의 조건들을 배겨내면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이들은 흔히 가장 강력한 표현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를 지탱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다.

III. 정의와 평화의 순례

III.1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70. 지금은 함께 높은 곳에서 새벽을 맞이하고, 일어나 창문과 문을 열고 나아가 함께 새날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71. 따라서, 우리는 교회들의 친교로서 함께 차이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토론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할 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토론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교회협의회를 하는 이유임을 다시금 기억합시다:

교회들의 친교의 가장 주된 목적은 세상을 향한 증언과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의 공통 삶과 예배 속에 표현된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성만찬 친교 속에서 가시적 일치로 향해 서로를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일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 세상이 믿음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72. 우리는 신앙의 민중들로서 계속 그리고 일관되게 서로를 향해 나아가 종된 교회의 형상을 체현하도록 부름받았다.

73. 바로 이 때문에 저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가 다음 총회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할 일에 대한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를 WCC 의 프로그램 활동과 삶으로서 계발하자는 2012 년 중앙위원회의 제안이 아주 지혜로웠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74. 저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플라토 닷시(Plateau d'Assy) 교회에서 발견한 모자이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암울한 1930 년대에 결핵환자를 위한 요양소 마을에 지어졌습니다. 모자이크는 다양한 색과 형태를 통합하여 젊은 성프란체스코의 이미지를 따뜻하고 친근하게 표현했습니다. 성프란체스코는 교회와 민족, 종교,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치유하고 화해시키기 위한-정의와 평화의-순례자가 되기 위해 모든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75. 우리는 우리의 모자이크를 만들기 위해 이곳 부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도, 나눔, 대화, 분별,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부분을 통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이미지를 함께 만들 것입니다.

76.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두운 곳은 어디일까요? 갈등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곳이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III. II 함께하는 여정

77.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교회로서, 교회들의 공동체로서, 각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담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행동하고, 변화하고, 주장하고, 안주하지 않으며, 선교적이고 예언자적인 태도를 가지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와 봉사를 친교와 일치, 선교, 정의와 평화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과 새로운 계획들은 이러한 통합적인 비전을 함께 수행해야 하며, 아울러 여러 요소를 포괄하고, 교회와 협력단체인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업에서 성, 청년, 종교 간 대화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을 갖고, 교회로서의 유대감을 쌓으며, 지지하고 옹호하는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78. 과거 어느 때보다 WCC의 활동은 회원 교회의 참여와 헌신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회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고, 또한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그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활동의 거대한 잠재력은 지역 교회, 국가 영역, 국제적인 의제와 관계 측면에서 동시에 타당한 것을 결합하는 데서 나옵니다. 말라위의 마을에 있는 사람과 제네바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이런 독특한 특징을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79.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2012년 6월, 우리는 국제문제위원회가 상하이와 난징에 모였을 때 중국에서 WCC 고위관리자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계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 가장 큰 아시아지역 회원교회인 중국교회협의회(CCC)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80. 우리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활동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영역은 WCC가 특별히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는 에큐메니칼 단체이자 국제단체로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지 식별하고, 아울러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합하여 더 강하고, 가시적이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영역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재원을 제공하는 협력단체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참여할 특별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며, WCC가 이것을 수행할 때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81. 우리의 역량은 직원, 전문위원회, 위원회, 전문가회의 등 우리의 자원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협력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교회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교회들의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82. 이것은 우리가 이런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생명의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아울러 정당한 기여 수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재정적인 자원이나 현물 지원뿐만 아니라 단기적 또는 장기적 인력 지원, 통찰, 경험, 관심,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83. 우리는 이런 자원들을 갖고 새로운 날을 맞습니다. 새로운 자료와 수정된 우선순위와 함께 과거의 중요한 활동뿐만 아니라 유산과 교훈을 가지고 새로운 날을 맞습니다.

III.III 순례자의 영성

84. 따라서 우리의 에큐메니칼 영성은 이러한 순례자의 이미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침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간구를 말해야 하며, 생명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 기도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함께 바라보려는 의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함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자신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세계를 섬기는 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85. 우리는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총만한 생명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평화행진을 하면서 품었던 비전입니다. 그는 50년 전에 변화를 향한 꿈을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이런 관점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나누는 우리의 사명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억압, 차별, 창조세계의 남용, 영적 황폐함이 있는 곳을 잘 압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그런 곳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과 상황 속에서 정의와 평화 여정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86. 따라서 우리는 이에 맞추어 우리의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프로그램 계획에서 세 가지 주요 영역, 곧 일치와 선교, 공적 증언과 봉사(diakonia), 에큐메니칼 훈련 양성으로 나뉩니다.

III.IV 일치와 선교

87. 일치하는 함께하는 삶이라는 선물이며, 우리는 함께하는 삶 속에서 동의할 때나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할 때에도 항상 서로를 내어주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책임성의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전통과 지식, 경험, 종종 아주 귀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소유물로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진실로 귀를 기울이고 서로에게 기꺼이 배우고자 할 때에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교리 문제와 도덕적 판단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때에도 여전히 고수되어야 합니다.
88. 최근 에큐메니칼적 삶에 대한 도전들은 교회협의회들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WCC와 같은 교회협의회들이 공동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유산을 새로운 시대에 제시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WCC는 이 일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WCC는 에큐메니칼 단체, 교회협의회, 글로벌 기독교 포럼, 모든 협력단체들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항상 유대감을 심화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넘어 더 넓은 교회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WCC는 우리의 조직과 관계성을 새롭게 하는 문제에 대해 에큐메니칼 실천가들과 함께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기회를 파악하고 살려야 합니다.
89. 우리는 전체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관계를 풍성하게 발전시켰고, 새로운 공동실무단 기구를 통해 WCC 총회를 뛰어넘어 훨씬 더 깊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실무단은 오순절 교파와의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대화와 상호 배움을 향한 헌신을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교파별 세계연합체(Christian World Communions)와 관련 활동은 특히 양자간 대화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90.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과 조직, 그리고 특히 너 무나 자주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람들에게 의해 의해 규정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총회 이후의 기간은 회원 교회와 협력단체들이 제시한 새로운 선교 문서를 받아들여 선교와 복음전도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종교적 환경-일부 지역에서 세속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은 우리가 세속적 환경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고, 복음전도와 공적 증언이라는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기 위한 창조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91. 2017년에 개최될 갱신에 관한 신앙과 직제 세계회의는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하고, 아울러 일치 추구와, 교회론과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회원 교회의 교회생활에 대한 연구와 통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회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신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기회입니다. 이 회의는 지정학적인 도전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도전적인 환경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생명과 신뢰성에 대한 우리의 통찰을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 회의는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III.V 공적 증언과 섬김을 통하여 진실을 옹호함

92. 무엇이 진실인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본 협의회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진리 주창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전문가적이고, 목회적이며 예언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적절하게 처신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증언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보다 협력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운동을 수행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최선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93. 하나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또한 제네바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우리 협의회의 효용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공유하는 다른 세계적인 주요 기구들과 협력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 이루고 있는 친교 관계야말로 다른 단체들이 우리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의 친교 관계를 통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어디서든지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기후 변화의 분야이든지, 무기 거래 협약이든지, 중동 평화의 문제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의제들에 대해 진실을 옹호하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유엔의 개혁, 즉 유엔 헌장 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유엔이 단지 “우리 국가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도록 이바지하는 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네바와 뉴욕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94. 정의를 위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이 인권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보호되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 인권 위원회가 설정한 틀 안에서 계속해서 사역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사역은 무기감축, 평화협정, 화해 및 치유와 관련된 많은 의제들을 다루는 일에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발족한 교회 국제 문제 위원회(CCIA)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갈등과 위기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또 그것을 더불어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95.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주요 활동들 외에 우리가 착수하려고 하는 새로운 활동들의 몇가지 본보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96. 콩고 민주 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성명서와 활동모임 등을 통하여 수차례 언급되었습니다. WCC 는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더불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새롭고도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의제는 우리와 친교를 나누며 생명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연대관계 속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97.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더불어 이집트에서, 특히 이집트의 젊은이들이 바람직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운동을 후원함으로써,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사역을 진전시키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습니다. 교회들과 시민 사회의 협력기구들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98. 평화는 모든 이를 위한 정의의 필수조건이며, 적절한 인간 관계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에 대한 상호간의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금번 총회에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을 향해 그들이 화해를 향한 과정 중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국가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99. 우리는 경제 구조가 무엇을 함축하는지, 경제적 부정의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WCC 로 모여서 이러한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에큐메니칼 협력 단체들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최선의 전략을 기초해 줄 수 있는 전문 위원단의 구성을 요청합니다. 생명은 언제나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인간과 피조물들을 포함한 만물을 위해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경제(economy)와 생태(ecology)와 에큐메니즘(ecumenism)이란 말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들 간에는 깊은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생명은 일치와 친교를 필요로 하며, 더 나아가 정의와 평화를 요구합니다. 자원들을 지속가능한 생태적 관점에서 서로 나누는 삶을 통해 구현되는 정의로운 경제는 전세계 속에서, 인류 가족 안에서 평화의 증언을 추구하는 우리의 에큐메니칼적인 비전에 귀속됩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위한 생명의 경제라는 비전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100. 아프리카 곳곳의 교회들은 그곳의 주민들과 더불어 HIV 와 AIDS 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담을 걸머진 채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있는 변화의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의

EHAIA 프로그램은 HIV 와 AIDS 의 도전에 대해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에 따라 다루어 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에이즈 전담기구 및 온세계의 교회들과 더불어 다음 단계의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단체들로 하여금 감염된 사람들을 적절히 대우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101. 우리는 이번 총회로 모여서, 강제이주를 당하는 이들 - 자신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하는 난민들과 여타의 사람들 - 과 연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엔 난민 위원회 및 다른 많은 협력단체들과 더불어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이바지 할 수 있는지 논의해 왔습니다. 우리는 궁핍한 상태에 처한 외국인들을 기꺼이 도우려는 우리의 결의를 나타내기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서명을 위한 문건을 작성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회 기간 중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단체들의 커다란 노력에 대해 WCC 가 지닌 독특한 지위에 걸맞는 합당한 도움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인 도전들을 제대로 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과제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02. 교회를 정의롭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사역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진실 옹호의 역할 및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차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많은 자원들, 인적 자원, 영성, 도덕적 가치 및 양질의 관계성 등이 공헌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토착 주민들이 그들이 속한 상황과 교회들 속에서 적절한 지위를 얻는 것, 이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적절한 관심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III.VI 에큐메니칼 훈련양성

103.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은 본 교회협의회 뿐 아니라 에큐메니칼 운동 전체가 힘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한 세대가 퇴장함에 따라 새로운 세대를 적절하게 준비하고 양성하는 일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보세이 에큐메니칼 신학원은 단지 교육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공동 생활을 개발함으로써 체험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큐메니칼 신학 교육의 사역은 세계 곳곳에서 필요한 신학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자질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닌 독특한 성격은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닌 교육적 잠재력과 더불어 WCC 가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훈련양성과 교육을 통한 갱신의 기회를 지구의 부국출신이든 빈국 출신이든, 동반국이든 서반구 출신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평신도이든 안수받은 목회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유산을 더욱더 진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III.VII 차세대

104.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그들의 단체가 활력을 가져다 주고 갱신을 위한 잠재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금번 총회의 참가자 중 약 600 명이 젊은 세대입니다. 저는 이들 참가자들이 이번 총회 뿐 아니라 이후에도 정의와 평화를 전하는 우리의 강력한 대사들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소중하게 키워 나가야 할 능력들과 관계성들과 네트워크와 자질들을 이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사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ECHOS 의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WCC 사역의 모든 차원에서 여러분의 공헌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 단지 하나의 위원회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더 적절하고도 유연한 구조들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III.VIII 소통

105. 우리가 서로와 더불어, 여론을 조성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및 기구들과 더불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본 총회는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준비물들을 나누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통찰을 나누고 주변부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개발할 것입니다.,
106. 본 협의회와 같은 전지구적인 기구에는, 전자 매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전파할 기회가 무진장하게 열려 있으므로, 이러한 전자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은 현재 우리가 하는 것보다 향후 더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뿐 아니라, 일차적으로 우리가 홀로 또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들 및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커뮤니케이션 부서들과 더욱 더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자원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럼으로써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심성과 자질들을 계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 말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통하여 의도하는 것을 더불어 함께 착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협의회의 다음 회기 동안,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III.IX 여성과 남성의 친교

107. WCC 가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하고 갱신해야 할 것은 여성들과 남성들 간에 정의롭고 상호 지지적인 친교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연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진정성을 지니려면, 우리들의 친교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와 공헌이 더 많은 공간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 생활의 모든 국면에 걸쳐서 더 큰 책임성과 지도력을 요구합니다.
108. 우리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함께 이루어 가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구현하는 일에 투신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들이 열망하는 연대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주변화되고 폭력의 희생자로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우리들의 공동의 삶 속에서 그들의 공헌과 역할이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여성들이 그 능력과 재능을 통하여 전체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여 왔던 현장입니다. 총회 직전에 사전 모임을 통해 여성들과 남성들이 함께 모여 여성들과 남성들로 구성되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성찰하고 토론하였습니다. WCC 는 우리가 남성들과 여성들로서 이 기구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함께 재능을 공유하는 것이 무슨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109. 본 협의회가 추진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방지 사역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통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관계들이 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소에서 보면, 여성들은 에큐메니칼 기구들과 사역들 속에서 모두의 유익을 위한 지도력과 자질들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지위에 관한 유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홍보 사역을 통해, 신앙의 관점이 이 대화 가운데 도입되었습니다.

III.X 종교간 관계

110. 생명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만물을 위한 정의와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더불어 발언하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타종교와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절박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삶의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의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고 대화와 확신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전진하는 길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사역을 가일층 증대시킴과 동시에 극단주의자들이 지닌 폭력 행동의 파장을 감소시키는 잠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111. 우리는 실제로 수 차례 종교간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상호경청과 나눔의 자세를 경험하였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에 피해를 입은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를 그리스도인-무슬림 간 공동 연대기구가 방문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 모두가 그 땅에서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나이지리아 방문은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이 함께 하는 동행의 행동이었을 뿐 아니라, 종교간의 대화와 상호 경청과 협력 행동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112.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비전과 투신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적 전통에 속한 우리의 자매들과 형제들이 공헌할 바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의 순례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나란히 걷고, 재능과 통찰들을 기부하는 가운데, 만물을 위한 공동의 생명 가치에 대해 함께 성찰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유대교인, 무슬림, 불교인, 힌두교인 및 여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관계들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3. 세계교회협의회는 이러한 타종교와의 관계를 통해 대화와 협력을 나눌 준비가 된 회원 교회들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전국 단위와 국제적 차원의 교회들로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또 한 걸음을 전진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경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과 행동들을 취하는 이들과도 만나서 관계 맺는 새로운 활동을 착수해야 합니다.

IV. 결론: 순례를 인도하는 WCC

114. WCC 의 역할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인도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115. 공동체의 관건은 겸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심지어 그 필요성을 알지도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기꺼이 받아들여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일치라는 소명을 성취하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 활동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 공동의 선을 위해 계속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증언과 봉사를 위해 함께 힘쓸 때, 더 큰 친교를 경험할 때, 권력에게 진리를 증언할 때, 우리가 받은 새로운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6. 우리 시대의 과제는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친교 공동체는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목표에 대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17. 이것은 진짜 순례입니다. 사상의 순례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발견하기 위한 운동(movement)입니다. 이 순례는 많은 활동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발전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경험에 의해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118.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은총, 곧 세계교회협의회 of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의 친교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나눌 수 있고, 또 WCC 를 그리스도인들 서로간 연대 그리고 세상과의 연대라는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이번 총회의 과제입니다.

119. 위로부터 돕는 해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120. 그래서 우리의 순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